

哲學 概念의 變遷

哲學의 普遍的 定義의 難點(3)

金午星

여기서 우리는 필로소퓌란 名稱이 지금 우리가 理解하고 잇는 特殊科學과 區別되는 哲學을 意味한 것이 아니고 特殊 科學과 哲學을 全的으로 內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全的 概念에 該當한 名稱을 現代에서 찾는다면 獨逸語의 Wissenschaft일 것이다. 이 말을 사람들은 科學이라 解釋하는 것이나 이 科學이란 名詞는 그 우에 自然 또는 社會 等の 特殊 名稱을 언증에 따라 特殊科學이 되는 同時에 精神 또는 文學 等の 普遍的인 名稱을 언증에서 精神科學, 文化科學 즉 哲學으로 通用될 수 잇는 普遍的 名詞이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필로소퓌-는 現代의 뵈셴샤브트와 代等한 것이며 부르데! 뵈로소퓌- 또는 메타뵈지크가 現代의 뵈로소퓌에 該當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갓은 名詞의 概念的 變易는 우리들로 하여금 哲學을 一義的으로 定義할 수 업는 第一의 條件을 맨드러 주고 잇는 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 以後 哲學의 領野로서 確立되어 온 形而上學은 近代에 와서는 그대로 維持될 수 업게 되었다. 베-콘이 形而上學을 이도라(偶像)이라 하여 破消를 宣言하고 데칼트가 一切를 疑心하여도 自我는 疑心할 수 업다 하여 自我에 依한 明析 判明을 哲學의 主眼으로 삼게된 뒤에 칸트가 形而上學의 不可能을 暴露하고 認識論을 哲學의 主題로 하게 되었다. 칸트에 依하면 哲學은 어떤 超越的인 것을 把握하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科學(自然科學)的 認識의 可能的 基礎를 批判하며 省察하는 것이다. 여기서 哲學은 特殊科學을 떠나 形而上的인 것을 對象하는 것이 아니고 特殊科學과 聯結함으로서만 그 存立性을 가지며 特殊科學의 基礎를 原理的으로 省察함으로서 到達하는 普遍的 概念을 意味하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哲學은 現象을 超越한 形而上的인 것의 探究로부터 모든 現象을 基礎的으로 解明하며 現象을 基礎的으로 把握하는 認識主觀을 探求하는 것으로 轉化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以後의 形而上學的 哲學은 存在를 그 存在 樣相에 依하여 把握하려한대 反하여 近代의 認識論 哲學은 모든 存在를 構成하며 乃至 產

出(認識論的으로)하는 認識 主觀을 맨드러 내는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모든 存在를 雜多한 現象으로 보는 反面에 그들이 맨드러 낸 認識 主觀을 保便 妥當的이라 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普遍的 概念에 依하여 모든 特殊科學의 基礎를 批判하며 省察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認識論的 哲學의 原理에 依하여 哲學史家들은 哲學의 普遍的인 定義를 비저내려고 하였다. 즉 特殊科學이 各個의 特殊的인 것을 對象으로 하는 反對로 哲學은 이러한 特殊科學에 普遍的인 基礎를 주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定義는 實際에 잇서는 한 개의 形式的 規定에 지내지 않는다. 왜-그러나 하면 우리가 이러한 定義를 가지고 哲學史에 臨하면 이런 形式에 들어 맞지않는 珍妙한 哲學이 얼마든지 잇는 까닭이다. 이 形式은 어떤 哲學에 잇서는 너무도 넓으며 또 어떤 哲學에 對하여야는 너무 狹窄할지도 몰른다. 우리는 普遍學問을 區分하는 基準을 그 學問의 對象과 方法의 特性에 두게 된다.